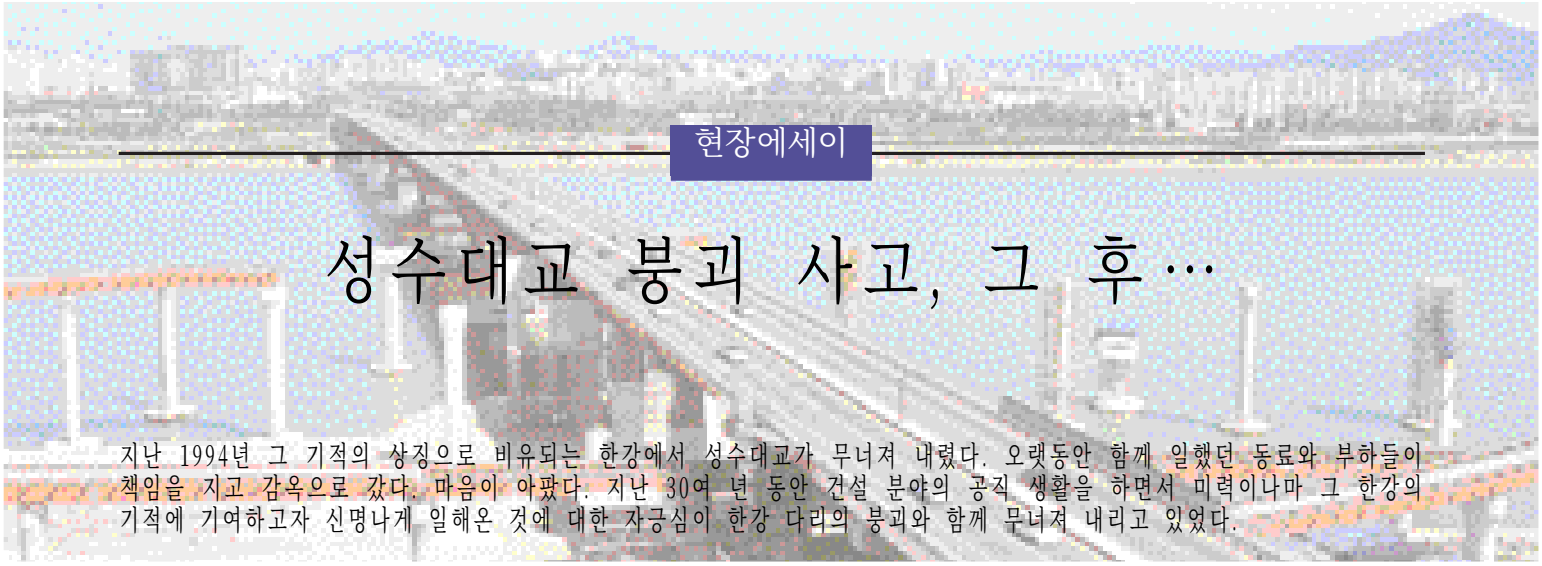

현장에세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 후…

지난 1994년 그 기적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한강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부하들이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갔다. 마음이 아팠다. 지난 30여 년 동안 건설 분야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력이나마 그 한강의 기적에 기여하고자 신명나게 일해온 것에 대한 자긍심이 한강 다리의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영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한강의 기적'- 오랜 일제 식민 통치 후, 또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그 폐허의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산업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유적 찬사였고, 우리는 그 찬사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비꼬기 좋아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해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994년 그 기적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한강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부하들이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갔다. 마음이 아팠다. 지난 30여 년 동안 건설 분야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력이나마 그 한강의 기적에 기여하고자 신명나게 일해온 것에 대한 자긍심이 한강 다리의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주었다. 전문가, 학계, 언론에서는 나름대로의 사고 원인 분석, 대책, 제언 등을 홍수처럼 내놓았는데, 대체적으로 책임을 진 당사자만의 업무 소홀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에 그 초점을 맞췄다. 파벌 주의, 금전 지상주의, 출세 지향 주의의 사회 문화적 풍토 속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먹이 사슬의 연결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 과제는 마음 고생만 시킬 뿐 신통한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그리고는 보다 참혹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 건설인들은 반성했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건설 분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외양상 매우 작은 부분을 소홀히 다루는 데서 기인했다.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는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면 최근 20 30년 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뿌리깊고 구조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나치게 빨리 달려왔으며, '최단 시간에 최저의 경비로 건설하는 것'은 부실 여부를 떠나 한때 우리의 목표였고 자랑거리였다. 이제는 그 서두르는 관행이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곳곳에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설계 소요 시간, 필요한 인력 및 자재 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착공 일자와 준공 일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대형 시설물 건설 공사가 그러하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이 사업들의 졸속을 걱정하였고 외국의 관련 업계에서도 '비정상'이라는 표현까지 했을 정도이다. 이제는 정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은 단지 시설물 설치 관련자의 의욕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예산 지원,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되는 개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서 정한 규정대로 자기 맡은바 본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이러한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현장 안전 수칙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서 안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차단하여야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담당 기관의 업무 추진 시스템을 개혁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획기적으로 극복되어야만 근원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공계를 경시하는 전통적 사회 풍조 속에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없는 외침을 계속해왔던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위한 위정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